

알 샤바브의 케냐 가리사 대학 공격

작성자: 박현주(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작성일: 2015년 04월 17일

- 2015년 4월 2일 케냐 동부의 가리사(Garissa)에서 가리사 대학에 대한 알 샤바브(Al-Shabaab)의 테러로 경찰 5명과 군인 1명을 포함한 148명 사망, 79명 부상당함.
- 이번 공격은 케냐의 소말리아 파병에 따른 보복이라고 알 샤바브는 주장하고 있으며,¹⁾ 알 샤바브의 테러로 인해 케냐 내에서만 수백 명 사망함. (그림 1 참고).

그림 1. 케냐 내 알 샤바브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 수



자료: "An atrocity in Kenya: Could things get worse?" 2015. *The Economist*, (April 11)

그림 2. 소말리아 점령 현황



자료: "Somalia's al-Shabab: Striking like mosquitoes." 2014. *BBC*, (February 26)

- 소말리아는 20년 이상 사실상 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최빈국으로 테러와 해적 활동으로 인해 주변 지역 정세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1991년 쿠데타에 의해 바레 대통령이 실각한 이후 무정부 상태가 지속하고 있으며, 2012년 모하무드 대통령 당선으로 20년 만에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아직 국가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
- 알 샤바브는 소말리아에서 2006년부터 자생적으로 발생, 세력을 확산하여 한때 남부 소말리아 전역을 장악했으나 아프리카 연합군의 개입으로 2011년 수도 모가디슈(Mogadishu)를, 2012년 항구 키스마요(Kismayo)를 뺏기면서 세력이 축소되고 있음 (그림 2 참고).
 - 이번 가리사 대학 테러는 알 샤바브의 세력 축소로 인해 동아프리카 외부에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

1) 케냐는 2011년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의 연합군으로 부룬디, 지부티,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우간다 등과 함께 소말리아에 파병하여 내전에 개입함.

는 여전히 위협적임을 보여줌.

■ 테러로 인해 케냐 내부의 사회적 차별과 갈등이 심화되고 정정불안으로 인해 경제 또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음.

- 케냐를 대상으로 알 샤바브가 테러를 자행하는 이유로 △ 소말리아 출신을 비롯한 모슬렘 집단의 소외 △ 사회 불평등 심화 △ 허술한 국경 관리로 인한 극단주의자들의 유입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알 샤바브의 테러로 인해 케냐 내부의 종교적 갈등과 소말리아 출신 및 모슬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²⁾
 - 이번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케냐 정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난민캠프인 다다브(Dadaab)의 소말리아 난민 350,000여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표함.
- 케냐는 역내 거점국가 역할을 하고 있어 정정 불안이 지속할 경우 외국인 투자 감소와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업에 대한 타격으로 인해 지역 경제 위축이 우려됨 (표 1 참고).

표 1. 국가별 도착 관광객 인원 추이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케냐	1,470,000	1,750,000	1,619,000	1,434,000
탄자니아	754,000	843,000	1,043,000	1,063,000
에티오피아	468,000	523,000	597,000	681,000

자료: International Tourism, Number of Arrivals, *World Development Indicator*, World Bank, 2015.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T.INT.ARVL> (2015.04.22. 검색)

■ 케냐는 2013년 나이로비 쇼핑몰 테러 이후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소말리아 국경지대의 보안 강화를 통해 테러를 예방하고 관광업 위축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임.

- 케냐 정부는 소말리아 남부의 주바랜드(Jubaland) 지역을 독립적인 안전지대로 만들어 동부 해변 항구를 통한 관광, 물류를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음.
- 또한, 남부 해변 소말리아 국경 근처의 라무(Lamu)에 남수단과 에티오피아를 잇는 송유관과 철도, 도로 건설을 위해 대규모 항구를 건설할 계획을 케냐 정부가 2011년 발표, 입찰 중이나 소말리아로 인한 정세 불안으로 항구 건설에 차질을 겪고 있음.³⁾
 - 난민과 무장세력 유입을 막고 항구 건설 예정지를 보호하기 위해 라무 부근 국경지대에 분리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티마미 라무 주지사가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으며 분리 장벽의 실효성은 미지수임.

〈참고: *allafrica.com*, *BBC*, *The Economist*, *The Guardian*, *NYT*, *Reuters*, *WSJ* 등〉

2) 알 샤바브의 극단적인 성격과 더불어 테러 대상이 주로 비모슬렘이며, 케냐 내부에서 특히 가난한 모슬렘을 대상으로 하여 대원을 모집하고 있는 점을 차별이 심화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3) 최근 항구의 첫 정박지 건설 시공자로 한 중국 기업이 선정되었으나, 해당 기업 이외에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